시멘트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장 성 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공업화과정에서 성장하였고, 타 산업분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시멘트산업이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종 산업들은 나름대로의 호황과 불황을 겪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성장해가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구조 속 산업발전의 일반적인 패턴일 것이다. 시멘트산업도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기억에도 생생한 것이 1997년의 상황이다. 당시 국내 시멘트업계의 총 공급능력이 6,200만톤에 불과했는데 수요는 이를 훨씬 초과하여 국내 출하분만 6,175만톤을 넘어섰다. 이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별다른 난관이 없었다. 국내 출하분만 따져도 2003년에 5,830여만톤에 달했고, 이후 정부의 주택 및 건설시장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면서 건설경기가 내리막을 걷게 되고, 시멘트업계도 동반불황에 처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초기에도 국내 출하는 5,080여만톤으로 꾸준히 5천만톤을 넘어섰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실시되면서 주택건설이 급격히 퇴조하면서 시멘트의 국내소비는 크게 위축된다. 2010년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재료는 2010년 연간 시멘트 생산량의 45% 이상, 철근은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밖에 주거용 건축물이 소비하는 레미콘은 연간 생산량의 35%를 넘는다. 국내 시멘트의 최대 소비처인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시멘트의 국내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방지를 명분으로 한 온실가스배출억제, 대기환경 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시멘트산업은 수요의 감소에 따른 판매부진, 규제의 강화에 대응하는 생산시설의 교체와 이에 따른 부담이라는 2중고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멘트산업은 대표적인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장치산업이자,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서 동안의 공해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시멘트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며, 전체 배출량 중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이 40%, 석회석원료의 탈탄산 과정에서의 배출이 60%에 이르고 있어 시멘트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충격을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폐자원의 유효 이용을 통한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에 맞추어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멘트업계의 불황은 예견된 일이었다. 구미로 갈수록 저

성장기조가 확대되면서 도로,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수요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연 9,300만톤에 달하던 시멘트 수요는 현재는 연 4,000만톤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 시멘트업계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심각한 판매부진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으로 시멘트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원재료 값은 매년 치솟으면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수요처인 건설시장이 불황에 처하면서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09년 4,800만톤으로 5,000만톤 벽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4,500만톤까지 줄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 물량은 국내 시멘트업계의 생산설비 능력에 비해 70%선에 불과하다. 원재료 가격도 치솟고 있다. 시멘트 생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전량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가격이 해마다 뛰고 있다. 2003년 톤당 85달러에서 올해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안 팔리고, 팔아도 밑지는 시멘트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과다한 생산설비 과잉 문제로 집약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판로의 개척이나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위해 시멘트업계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건설경기는 국내외 경제전반의 여건 상 단기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4대강 복원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면 시멘트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시멘트업계는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멘트업계는 새로운 건설경기 붐이 일도록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관련 건설산업계와 공동으로 새로운 건설시장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건설산업도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롯데 월드, 상암동 DMC 등 3~4건의 대규모 초고층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를 창출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초고층 건물이 건설되더라도 시멘트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이 고강도 철골구조로 건설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멘트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설 분야 예를 들자면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이나 수도권내 고속철도의 전면 지하화, 또는 서해안 곳곳에 인공섬의 축조와 같은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의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홍보하여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시멘트 제조공정은 높은 온도와 긴 가스 체류시간, 석회석 원료의 중화작용 등 폐자원 활용에 있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멘트산업은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폐기물 매립장 수명연장과 해양투기 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천연자원의 소모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살림훼손을 감소시키는 등 국가 환경부하 저감을 통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노력을 사회전반에 널리 홍보하여 시멘트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설비개선과 생산력의 감축도 동시에 진행하고 수요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작업을 게을리 하거나 개별 기업간의 제 살 갉아먹기식 경쟁에 집착할 경우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의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자각과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